

禪茶一如의 즐거움

# 茶園 녹수청산

주소: 서울 종로구 권지동 110-33 전화: 736-3782

# 현대 불교

법공양판 (관음포교원)

18~19면

청와대에 법공양 합시다

20면

현대사회를 문화적으로 볼때 영상시대라 하고 신세대를 '비디오세대'라한다. TV와 비디오등의 보급으로 영상매체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계는 저조한 제작과 홍보, 후진적 판매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에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교계에서 영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것은 불과 10년안팎. 그것도 사찰행사를 필름에 담은 수준이었다. 현재 일반 상품으로 보급되는 영상물은 교리강의, 찬불가, 상지순례, 행사기념물, 다큐멘터리등 극히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략 30여편이 나와 있다. 이중 성지순례나 다큐물은 외국작품을 대방한 단계이고 그외는 스님법문이 전부인 현실이다. 이중에서 순수하게 기획된 작품은 불교방송의 '불자예절'과 '열반의 세계'가 돋보일 뿐이다.

최근 조계종 기획실이 분석한 '일반매체에서 초과입력보다 성탄일에 종교방송을 긴시간 편성한 것'을 지적하기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SBS의 한 PD는 "기독교물은 영화에서 뮤지컬까지 수백편이 내려있는데 반해 불교영상물은 수량도 없고 다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 오늘의 영상 포교

### 제작·보급 아직 불모지 비디오시대 대책 절실

이와관련 교계의 한 관계자는 "불교영상물은 행사기념물과 개인작품보관의 차이를 넘어 우리문화의 80~90%에 이르는 불교교유영역을 기반으로 일반인에게도 이용가능한 대중성있는 다양한 기획물과 역사를, 다류등 복합적인 프로그램제작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딱딱한 불교교리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소화하고 불교교리를 현대화하여 소화할 수 있는 불교프로덕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 TV방송이 출범했지만 더욱 시급한것은 프로그램을 공급해줄 불교관련 전문 프로덕션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불교영상물은 내용을 쉽게 전달해주는 불교적인 영상미와 교리가 합해지는 미래용 포교수단이다.

그러므로 교계에서는 전통불교문화 발굴의 필요성과 새로운 불교포교유형 개발을 위해 양질의 불교영상물 제작 공급하는 프로덕션의 설립이 해결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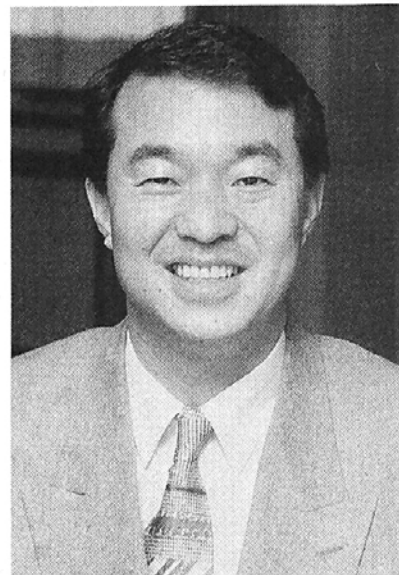
이와함께 불교영상물들이 책방 여시아 문동 조계사부근과 지방불교용품점에 국한 판매돼 일반국민들의 눈요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일반판매점과 비디오 대여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하는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유통망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원우 기자



### 포교의 꽃

촬영 편집 음향 조영등 최첨단 영상기 자재를 완벽한 현대프로덕션 스튜디오



현대프로덕션 김인기 실장

### "가슴 적시는 영상미로 포교 새 바람 일으킬터"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있어 활자포교는 활성화됐지만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는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여서 그동안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이 불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6년여동안 불교계의 일대사를 놓치지 않고 비디오에 담은 현대프로덕션 김인기실장(42)은 이제는 불교도 영상포교의 시대라고 강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도약하고 있지만 불교계만 변하고 있지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김실장은 현대프로덕션이 불교계를 대변하는 영상포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영상사업에 뜻을 두고 그동안 불교관련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온 김실장은 "부처님의 모습을 여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영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다"며 "급년 청소년 포교의 해를 맞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하게 볼 수 있는 한편 교육과 포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 포교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93년 조계종 개혁과정에서 폭력배들의 스님폭행행위를 촬영,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 '개혁의 스타'였던 김실장은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봐도 싫증나지 않는 참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불교영상문화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강한 집념도 내비쳤다.

전국 승가회 학인대회(93년),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94), 조계종 개혁 다큐멘터리 '종단개혁 이렇게 이루어졌다(94)', 광복50주년 순국선열추모대회(95) 등 사료적 가치가 큰 작업까지 소신과 사명으로 일해왔다. "물려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이시대의 작품으로 구성하겠다"는 김실장은 영상작업을 통해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근>

# 부처님세계 영상으로 피어난다

## 본사 '현대프로덕션' 설립...첨단 포교 본격나서

'부처님의 세계가 영상으로 우리곁에 펼쳐진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 1월 19일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을 설립하고 불교영상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대프로덕션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촬영, 편집, 음향, 조영등 최첨단의 영상기자를 위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김인기실장을 비롯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고루 갖춰 교와 질의 영상과 기획력으로 불자들의 신명만족을 위해 영상포교시대를 선언했다.

24시간 전수전안이 되어 불교계의 모든 소식을 카메라에 담게 될 현대프로덕션은 각종 신영의 현장뿐만 아니라 고승대덕의 승결이 살아숨쉬는 전국 사찰을 찾아 불법의 오묘함과 불교문화의 진수를 생생한 영상으로 안방에 전하게 된다. 마침내 현대프로덕션이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

### 법문·각종 홍보물등 '신선한 기획' 추구 신행현장 천수천안 "불법 살아 있어요"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영상 부문에 있어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계. 현대프로덕션의 활동 폭은 다양하고 광대하다.

현대프로덕션은 첫 기획물로 어린이 포교, 복지 및 문화·교양물, 콘서트의 행적 등을 담은 영상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대프로덕션은 특히 특별기획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제작한다.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인 부처님 일대기는 부처님의 법음이 오롯이 살아 숨쉬는 인도 네팔 현지 곳곳을 찾아다니며 부처님 생전시의 모습을 새로

운 시각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프로덕션의 활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8만4천의 불법을 보다 쉽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불자의 예절, 사찰의 향기, 초발심자를 위한 기획물까지도 불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밖에도 전국 각 사찰별 역사적 배경, 기업체 및 관공서 홍보영화, 각종 제품 홍보물, 사인 교육용 영상물, 성지순례의 과정 등을 제작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사업을 통해 한국불교의 대변력을 이룩하겠다는 현대프

김종근 기자

# 현대프로덕션

## HYUNDAI PRODUCTION

###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어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어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움의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삼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생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